

월간 실적보고

2015.08

Summary of 2015 Aug

1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37.2%** 성장

- 패키지 **20.4%** / 티켓 **74.3%** YOY 성장

패키지 **10개월 연속 2자리수 YOY 성장률** (인원 **10.9**만명)

티켓 **13개월 연속 2자리수 YOY 성장률** (인원 **7.1**만명)

2. 일본 **78.7%** / 동남아 **19.4%**

- 일본 YOY 성장률 **12개월 연속 54%** 상회

- 동남아 **10개월 연속 2자리수 YOY 성장률**

여러 악재 속에서도 선방한 8월

8월 합산 (패키지+티켓) 성장률 37.2%, 송출인원 18만명. MERS 이후 지속된 국내외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(중국발 금융위기, 방콕 폭탄 테러, 남북 긴장 고조 등) 8월은 올해 들어 2번째로 많은 모객을 했습니다. 여러 악재들로 인해 큰 폭의 성장의 시점은 4분기로 옮겨간 상황이지만, MERS 영향 직후인 7월 보다 개선된 성장률을 기록하며,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나갔습니다.

패키지는 20.4%의 YOY 성장률과 송출인원 10.9만으로, 역대 8월 최다 모객을 갱신했습니다.

티켓은 성장률 74.3%, 송출인원 7.1만으로, 올해 2번째 높은 성장률과 올해 최다 월간 모객 달성하며,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

6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는 성장률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5	109,205	71,309	180,514
2014	90,667	40,920	131,587
YOY	20.4%	74.3%	37.2%

총송객 YoY : 15년 6월 24.6% → 7월 31.0% → 8월 37.2%

패키지 YoY : 15년 6월 12.7% → 7월 15.5% → 8월 20.4%

티켓 YoY : 15년 6월 48.8% → 7월 63.1% → 8월 74.3%

일본 78.7% ↑ 동남아 19.4%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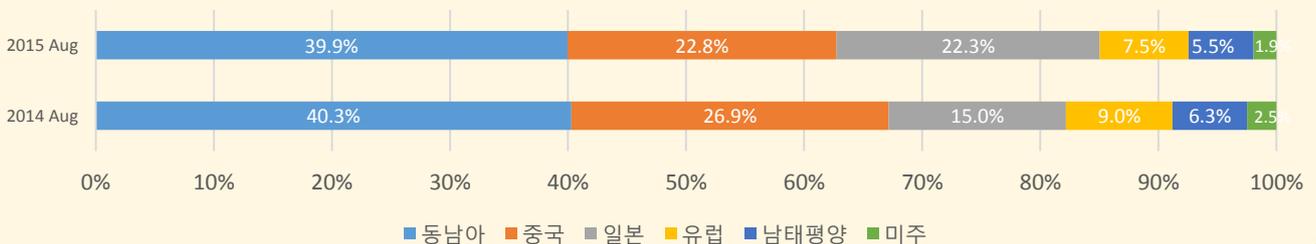
8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전년대비 일본 78.7%, 동남아 19.4%, 남태평양 5.3% 이며, 지역별 인원 비중은 동남아 39.9%, 중국 22.8%, 일본 22.3% 입니다.

일본은 전년동월 대비 78.7% 성장하며, 1년 동안 매월 전년대비 54% 이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이미 올해 7월까지의 누적모객으로 작년 연간 모객을 넘어선 상황입니다. 인원비중도 전년비 7.5%p 증가하며,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
동남아는 19.4% 성장하며 조용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방콕 폭탄 테러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었지만, 일본 및 동남아 다른 국가 등으로 수요가 이전되는 모습을 보이며, 성장을 이어갔습니다.

유럽의 전년대비 성장은 Flat 했습니다. 유럽은 타 지역에 비해 Lead time (예약일과 출발일 사이의 기간) 이 길고 출발하는 달에 들어오는 예약의 비중이 낮은편으로, 6월 중순 발생한 MERS가 8월 예약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. 이런 상황은 9월까지 다소 영향을 미치겠지만, 이연 수요로 인해 10월부터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어, 그간의 높은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명, %)

	9월	10월	11월
2015년	74,641	68,282	26,655
2014년	66,806	52,429	18,409
증감률	11.7%	30.2%	44.8%
2014년 마감	81,193	98,323	84,913

* 2015.8.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6월 MERS를 시작으로 정치, 경제, 사회분야의 부정적 이슈들이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. 여행수요는 6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, 연이어 발생한 이슈들은, 예약시기를 늦추게 만들었고 이는, 예약이 4분기로 이연되는 상황을 유발했습니다. 때문에, 올 3, 4분기는 계절성이 많이 희석되어, 3분기의 실적보다는 4분기의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. 지역별 Lead time의 차이로 부정적 이슈에 영향을 받은 시기가 차이가 났지만, 전체적으로 4분기에 들어서면 부정적 영향들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, 실제 예약률 증감을 보면 4분기 좋은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.